

이 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의 주장

- 본인 및 가족은 93년 본 아파트 입주 후 27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아오다 20년 ○○월 ○○일 위층 세입자(○○동 ○○호) 입주 후부터 속수무책으로 수년간 특정시간 없이 진행되는(주로 심야시간대)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소음 고통에 시달렸으며, 이로 인한 불안, 공포, 불면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 등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.
- 주요 소음은 ○○호 세입자 아들인 청년의 기압지르기, 발 구르며 왔다 갔다 하기, 쿵쿵 짝기, 연장 같은 것으로 바닥 두드리기 등 견디다 못해 관리사무소 층간소음회의, 경비원 ○○호 방문(수시) 및 관련기관(동사무소, ○○구청을 관할 경찰) 협조하였으나, 미미하였고, 서울시 층간소음상담 신청 후 서울시 층간소음 측정결과 별첨 측정 보고서와 같이 상당한 소음기준초과 결과를 통보받았으며, 수년간 잠을 제대로 못자는 피해로 인한 심신쇠약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
- 가해자(○○호)의 전세 재계약(○○년 ○○월경)으로 인한 앞으로 발생하는 수년간의 피해예방을 위해 확실한 방음대책과 심야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없도록 조치되어 지기 바라며 재정을 신청합니다.

나. 피신청인의 주장

- 아래 층간의 층간소음으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먼저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.
-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의 입장은 아래층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 가정으로 타겟을 삼아 호소를 한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- 저의 가족 구성원 중 청년인 아들이 있다 보니 걷는 힘이 좋기도 하고 물건을 다룰 때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해서 쿵쿵 소리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과대 해석을 하여 우리 집에서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어디서인가 소리만 나면 저희 가정으로 과대 해석하여 무조건 저희 가정으로 문제의 초점을 돌리고 계십니다.
- 이사 초기 간혹 발생하였던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서로 배려하고 지낼려고 애쓰고 있었으며, 현재는 청년 아들이 학업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지낸지 6개월이 다 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도 여전히 전혀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그런 와중에도 제가 귀가 후 저녁에 집에서 들어보면 가끔 쿵쿵 소리가 자주 울리기도 하고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희로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저의 가정도 다른 집을 이해하고 또 저희로서도 최대한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2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현황

-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사자 거주 공동주택은 인접하여 ○○산이 자리 하고 있으며, 주변에 도로교통소음 및 사업장 등 생활소음원이 없는 아주 정온한 환경이다.

나. 당사자 주거 공동주택 현황

- 건 물 명 : ○○
- 위 치 : ○○구 ○○로
- 용도지역 : 제1종일반주거지역
- 연 면 적 : 865㎡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3층(9세대)

- 주 용 도 : 공동주택
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벽식
- 사용승인 : 1993.12.13

다. 당사자 방문상담 결과

○ 신청인 조사내용

- 생활환경 : 2019년 7월부터 입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.
- 피해내용
 - 위층에 어머니와 아들(20대)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, 2018년 ○○월 이사 온 날 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해 보이며 하루 종일 집에서 종일 거주하며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소음 발생행위를 하고 있다.
 - 이로 인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 한다, 위층에서 한 행동이라고 확인은 안됐지만, 2017년 겨울 위층에서 불붙은 종이가 화단에 떨어진 것을 주민들이 보고 화재 위험 있어 신고 한 적도 있다.
- 현재상황
 - 피신청인 아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난 후에도 예전에 있었던 소음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, 그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를 위하여 재정신청을 다시 하게 되었다.

○ 피신청인 조사내용

- 생활환경 : 본인은 직장인으로 ○○호에 전세로 2018년 ○○월부터 아들(20대), 딸(고2) 세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. 배우자는 지방에 근무하며, 불규칙적으로 집에 오고 있다.
- 현재상황 : 아들은 작년 ○○월 ○○일에 다른 곳(기숙사)으로 거주지를 한시적으로 옮겼으며, 공동주택이므로 모든 소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함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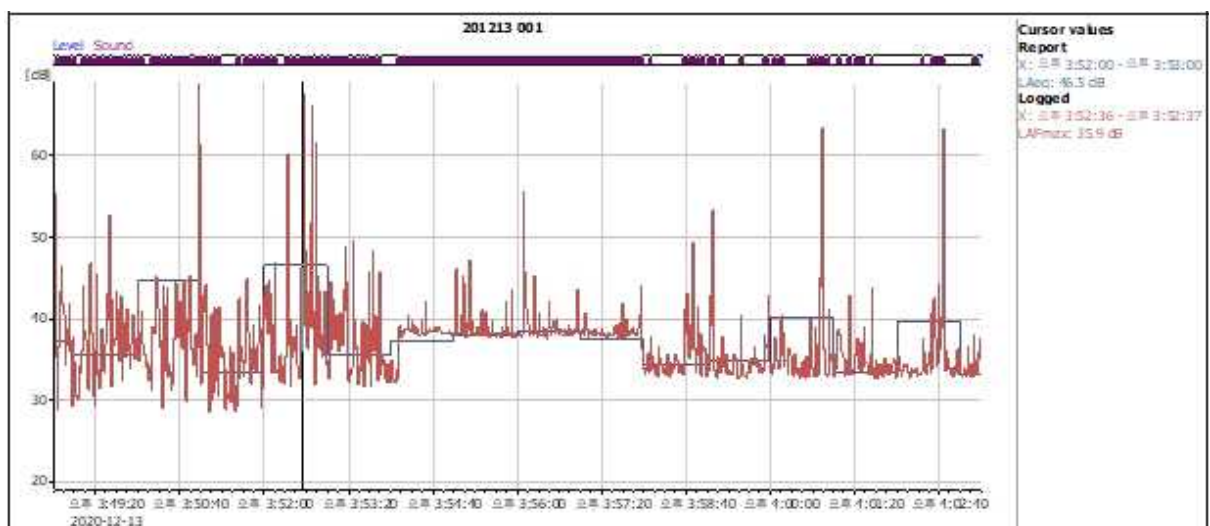
가. 층간소음 피해 평가

-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, 심문 및 진술 등으로 층간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.
- 층간소음 측정결과
 - 일 시 : 2020.12.11.(금) 15:00 ~ 12.14.(월) 14:00
 - 측정기관 :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
 - 측정장소 : ○○호 거실
 - 측정구분 : 직접 충격소음 분석
 - 배경소음 : 주간 30 dB(A), 야간 29 dB(A)
 - 측정자료 분석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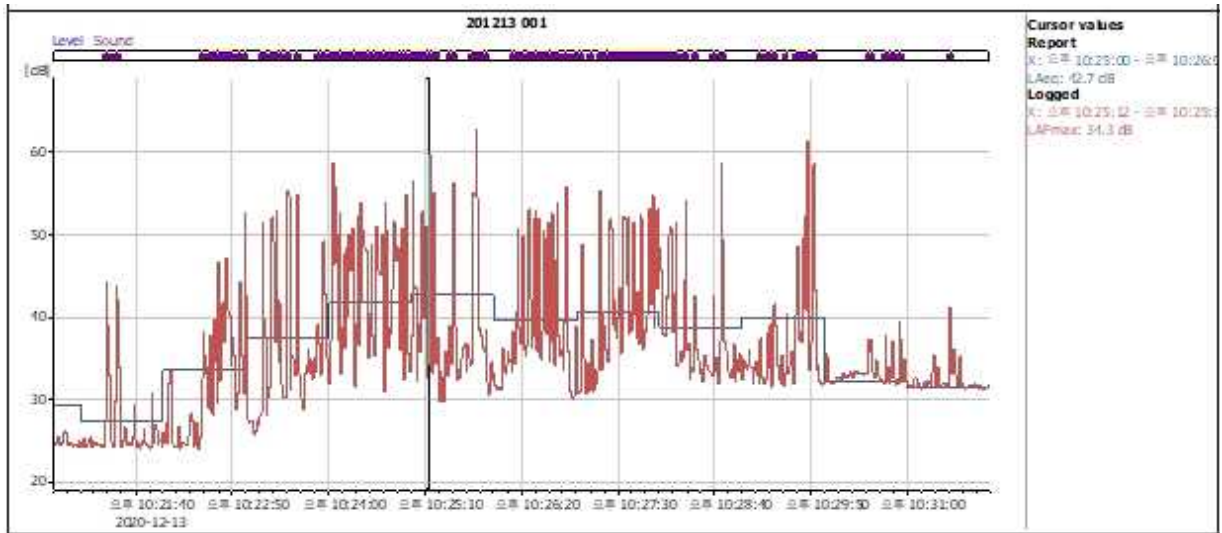
〈표1〉 1분 등가소음도(L_{Aeq})

구 분		주 간 (06:00~22:00)	야 간 (22:00~06:00)	비 고
등가소음도 dB(A)	시간	1분	1분	
	기준	48	43	
	측정치	47	43	

· 주간(06:00~22: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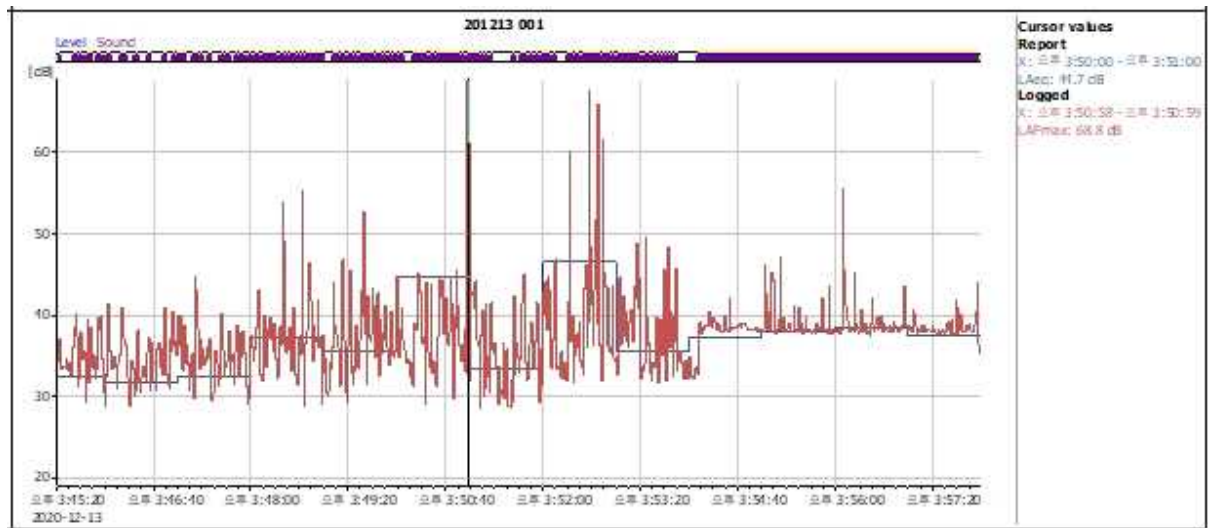
· 야간(22:00~06: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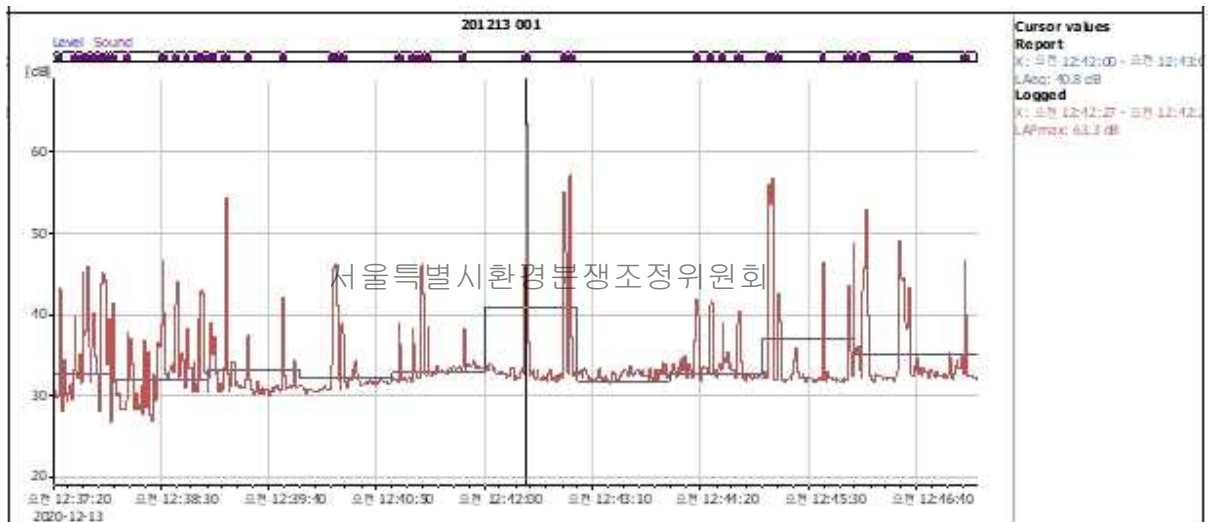
〈표2〉 최고소음도(L_{AFmax})

구분	주간(06:00~22:00), 기준 62dB(A)					야간(22:00~06:00), 기준 57dB(A)					
	측정일시	측정 소음도	배경 소음도	대상 소음도	소음원	측정일시	측정 소음도	배경 소음도	대상 소음도	소음원	
최고 소음도 dB(A)	2020.12.13. 11:44	63.6	30	64	충격음	2020.12.13. 00:42	63.3	29	63	충격음	
	2020.12.13. 15:19	62.7		63	충격음	2020.12.13. 03:49	58.2		58	충격음	
	2020.12.13. 15:50	68.8		69	충격음	2020.12.13. 04:40	60.1		60	충격음	
	2020.12.13. 15:52	67.6		68	충격음	2020.12.13. 22:24	58.6		59	충격음	
	2020.12.13. 16:00	63.4		63	충격음	2020.12.13. 22:25	62.7		63	충격음	
	2020.12.13. 16:02	63.3		63	충격음	2020.12.13. 22:28	58.7		59	충격음	
	2020.12.13. 16:10	65.4		65	충격음	2020.12.13. 22:29	61.3		61	충격음	
	2020.12.13. 16:27	66.7		67	충격음						
	2020.12.13. 16:55	64.8		65	충격음						
	2020.12.13. 17:08	67.3	67	충격음							
	2020.12.13. 17:27	62.7		63	충격음						

- 주간(06:00~22:00)



- 야간(22:00~06:00)



4. 판 단

- 신청인의 층간소음 피해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대응방법에 있어서 자녀가 층간소음의 피해를 주는 행동 등을 제어하지 못하고,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뒤 늦게 다른 곳(기숙사)으로 옮기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과 행동에 소홀함이 있었으며, 층간 소음도 측정 결과 최고소음도가 주·야간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
5. 배상수준 검토

가. 배상책임

- 피신청인 전현숙은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나. 배상범위

-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 수준인 최고 소음도 주간 62dB(A), 야간 57dB(A)을 최대 7dB(A)을 초과한 신청인 ○○○ 등 2명에게 배상 한다.
- 배상요구 기간 중 소음피해를 매일 발생하였다 볼 수 없는 점, 당사자 주거 아파트는 1993년 12월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며,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로,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비해 층간 슬라브 두께가 달라 소음에 좀 더 취약한 구조이며,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이 쉬운 상황 점, 그간의 층간 소음의 피해를 준 점은 일부 인정되나, 현재는 층간소음의 피해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.

다. 배상액

- 정신적 피해 배상액 1,040,000원, 재정신청 수수료 3,120원을 추가 하여 합계 1,043,120원이다.
- 공사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
 - ▶ 520,000원[6개월 이내, 6~10dB(A)이하]
 - = 520,000원 × 2명
 - = 1,040,000원
- 재정신청 수수료

$$\begin{aligned} &\blacktriangleright 520,000\text{원} \times 0.3\% \\ &= 1,560\text{원} \times 2\text{명} \\ &= 3,120\text{원} \end{aligned}$$

5. 결 론

-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관련서류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